제11강 인문정신의 발흥: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Ⅱ

(1교시)

소피스트들이 그리스 인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호메로스의 시적 전통은 간결하고 명확한 산문 형태로 바뀐다. 오늘날로 보면 언어학자인 프로디코스가 이 점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修辭)도 문제가 되는데, 고르기아스는 특히 중요하다. 레온티노이의 사절로 온 고르기아스가 의회에서 한 연설은 그 내용보다도 언어적 특징 때문에 주목받았다. 그가 구사한 화려한 수사는 당대 아테네 사람들을 경악시킬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아테네 사회가 변론술에 집착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르기아스의 제자 이소크라테스도 이 점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히피아스는 놀라운 기억력과 방대한 지식의 소유자였으며, 천문·기하·산술·음악에도 밝았다. 훗날 보에티우스는 이 네 과목을 묶어 '자유사학과(自由四學科=quadrivium)'라 부르게 되고 이것이 중세 대학의 교양과목을 형성하게 된다.

소크라테스 역시 당대 사람들에게는 소피스트들의 일원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후세의 철학적 평가는 그를 소피스트들과 대립시키는 데 익숙하게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흔히 추한 용모, 초인적인 강인함, 정신적 고결함 등으로 묘사되지만, 그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소크라테스 역시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보다는 도시적 삶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도덕에 관심을 가졌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현실적 처방이 아니라 본질적 지식을 원했다. 때문에 그는 용기, 덕, 현명함, 정의, … 등의 본질을 묻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답을 내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논박하는데 노력했고,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에이로네이아(아이러니)라 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무지의 지'를 논하면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태도는 델포이의 신전에서 나온 신탁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고뇌를 함축한다. 소크라테스의 이 과정은 플라톤의 변증법=문답술로 이어지지만 소크라테스와 달리 플라톤은 분명한 존재론적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서구 본질철학의 모양새를 결정짓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그대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의 신탁을 중시했다. 그리고 "네 영혼을 볼보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영혼 개념은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오늘날의 '정신적인 것'으로 화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영혼을 갈고 닦는 것, 고결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두었다.

www.artnstudy.com

(2교시)

소크라테스의 시대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아레테=덕(德)'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힘'으로서의 아레테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그의 도덕철학의 핵심을 형성한다. 소크라테스는 '지덕합일(知德合一)'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훗날까지 이어지는 많은 논의거리들을 제공하게 된다. 지식과 덕 그리고 행복이 일치한다는 그의 생각은 현실적 경험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영혼론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면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앎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의 테제로 읽으면 오해이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앎과 행위는 일치한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철학적 테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이기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 명제와 실천적 명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비판했다.
"우리는 건강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되기를 원하며,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너무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이라는 생각이다.
소크라테스 생각의 중심에는 영혼론이 깔려 있다. 영혼으로 무엇인가를 알고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행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 중요하게는, 영혼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혼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 훌륭하게 되는 것의 한 측면이고, 이 때 그 존재는 자연스럽게 뛰어난 존재에게 어울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안다"는 말의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의미'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진정 "안다"는 것은 기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진정한 앎, 즉 체험을 통한 앎은 결국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고 영혼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적인 '지덕합일(智德合一)'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해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보편적 명제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개개의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학문 개념을 가지고서 재단하면 곤란하다.

www.artnstudy.com